

# 민주당의 ‘돈천’, 2026년 지선은 얼마?

〈錢薦〉



배지환  
수원시의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권력은 시민의 ‘표’에서 나온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보면, 이제 표가 아니라 추악한 ‘뒷돈’을 동력 삼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성과 대가성 의혹이 짙은 ‘공천청약금’이 ‘공천헌금’으로 미화되어 불리는 현실은 정당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본래 공천(公薦)이란 ‘공평할 공(公)’에 ‘천거할 천(薦)’자를 쓴다. 정당이 공적인 책임 아래 인물을 공정하게 추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1억 원 수수 의혹은 민주당의 공천이 그 의미를 지키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공적 가치는 사라지고 뒷돈 거래가 그 자리를 대신한 ‘돈천(錢薦)’ 시스템 아래에서, 주권자의 선택권은 시장 바닥의 매물처럼 팔렸다.

최근 민주당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22년 4월 김병기 당시 서울시장 공관위 간사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았다, 나 좀 살려달라”며 피해호소인을 자처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부적격 후보가 단수 후보로 결정되며,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연봉 7000만 원 수준의 시의원 자리를 두고 1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거론됐다는 의혹은, 통상적인 정치 참여의 범위를 넘어선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시의원직이 공적 봉사라기보다 사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지위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천 과정을 통해 권력자들과 관계 형성을 염두에 둔 구조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결국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시의원직을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이 문제가 강선우 의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김병기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수사는 의외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병기는 공심위 간사라는 요직을 맡았다.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타인을 검증하고, 자수하듯 살려달라고 하던 사람은 금품 제공 의혹 당사자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기 막힌 상황은 금권 정당 시스템 즉 ‘돈천’의 완성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 부도덕한 의혹의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선우의 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검 도입을 포함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물론, 공천 관리와 검증의 연관이 있는 당 지도부와 책임자들까지 성역 없는 전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심판보다 무서운 것은 주권자의 심판이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돈에 매수되어 무너졌다면, 이제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절실하다. 주민 여러분의 매서운 눈과 소중한 한 표가 정치의 타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수원시의원(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 막차 이후, 남은 질문



허정운  
(자본시장부)

“이제 ‘막차’도 끊겼네요.”

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한 뒤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와 달리 환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슈퍼365’ 계좌 혜택이 종료(기존 고객은 유지)되면서, 수수료 우대 이벤트는 국내 증권업계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금융당국의 문제의식과 시장의 반응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 당국은 과열된 마케팅을 문제 삼았지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변화는 ‘마케팅 자체’가 아니라 ‘해외투자자에 대한 경계 강화’로 집중됐고 강간에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줬다.

흥미로운 건 뒤이은 투자자 반응이다. “애초에 이벤트 때문에 해외주식 한 건 아니다”, “막차 끊겠다고 가던 길을 멈추진 않는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조치가 투자 행태를 뒤집어엎을 만큼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향한 자금의 방향은 수수료 몇 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더 나은 실적, 더 빠른 성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결정’이었다.

지금 국내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그 사이 급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저력은 다시 증명되고 있고, 코스피는 4400선을 넘어섰다. ‘국장은 안 된다’는 말이 자동반사처럼 나오던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국면이다. 시장은 살아 있고, 몇몇 기업은 결과로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 필요한 건 ‘해외투자를 줄여라’는 신호가 아니라 ‘국장으로 돌아올 만하다’는 근거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주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규제가 아니라 신뢰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불공정거래가 국내 주식시장에는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당국이 말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역시 마찬가지다. 구호만으로는 ‘프리미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를 잡고,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이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구조가 작동할 때 비로소 설득력이 생긴다.

수수료 막차는 끊겼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던지는 질문은 따로 있다. 돌아오라고 부를 만한 ‘역’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두었는가.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6일 (음 11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 난다. 48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60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72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84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도 좋은날.



37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의식이 일어난다. 49년생 입안의 혀처럼 구는 사람 에게도 배울 것이. 61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73년생 심신을 닦고 집안도 닦자. 85년생 화가 禍를 부르지 종일 차량 운전조심



38년생 싱크대 청소를 하면 냄새가 없어질 것. 50년생 도로 다니다가 미끄럼 주의를 해야 하니. 62년생 흰색이 행운을. 74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땀 수 없이 친한 친구가 감사. 86년생 백(魄)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39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51년생 황혼이혼을 해야 하는지. 63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될 것. 75년생 처남으로 인해 손재수가. 87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40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52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64년생 부지런하여 앞사기는 사람을 본받도록. 76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88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41년생 원숭이띠를 멀리할 것. 53년생 서투른 표정은 오해를 부르지 표정 관리. 65년생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는다. 77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89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42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어 베풀어야. 54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손실. 66년생 뒷사람을 도우니 성과가 온다. 78년생 콩과 보리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지 말자. 90년생 잡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43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55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67년생 모임공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질로 입을 다문다. 79년생 조상을 숭배하고 문중을 돌보자. 91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똑심으로 밀고 나가자.



44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다. 5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68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80년생 힘나함을 넘어가다 보면 발전도 늘 달려오게 마련이다. 92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45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57년생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69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81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陰의 영역에서 시작이다. 93년생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남편이 기가 막혀서 우울.



46년생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 58년생 골치 아픈 일은 조언을 구하여 처리. 70년생 간교한 싸움에는 휘둘리지 않도록. 82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품으라 했으니. 94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행운의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47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59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조심. 71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83년생 주변에서 지적해주는 말을 경청해야. 95년생 공짜가 없으니 액운을 막아주는 기도풍속을 따르는 지혜.



## 김상회의四季

경제를 공부

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변하고 있다. 전세게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한다지만 고물가와 화폐까지 하락 등으로 실질적 명목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생활 수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 하향화에 전체 경기는 침체 모드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정책으로 정부는 국제발행을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재정을 더욱 나빠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게 한다. 이런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답일까? 원래 소비는 경제 활성화의 주요요인인데 말이다.

소비가 줄면 기업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발미가 되면서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반대로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매출이 증가해도 당연히 고용도 증가한다. 고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월급들을 받으니 소비 역시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제 활성화, 호경기의 기본 공식이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단순히 생산으로 인한 기업이익이나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채가 두려워 투자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은커녕 퇴보한다.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보면서 적당한 부채를 지더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경제의 속성이 그렇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경제체제를 공부해야 한다. 병오년은 화(火)이니 재화 적으로는 재산을 늘리고의 문제를 떠나 그 시스템이 달라지는 주식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더욱 발달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종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826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930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6 | 1 | 2 | 9 | 9 | 2 | 8 | 7 | 8 |
| 9 | 8 | 8 | 2 | 7 | 1 | 9 | 6 | 2 |
| 7 | 9 | 2 | 8 | 8 | 6 | 9 | 2 | 1 |
| 2 | 2 | 6 | 7 | 1 | 9 | 8 | 8 | 9 |
| 9 | 9 | 7 | 8 | 2 | 8 | 2 | 1 | 6 |
| 8 | 8 | 1 | 2 | 6 | 9 | 2 | 9 | 7 |
| 8 | 6 | 8 | 9 | 2 | 7 | 1 | 9 | 2 |
| 2 | 7 | 9 | 1 | 9 | 2 | 6 | 8 | 8 |
| 1 | 2 | 9 | 6 | 8 | 8 | 7 | 2 | 9 |

|   |   |   |   |   |   |   |   |   |
|---|---|---|---|---|---|---|---|---|
| 2 | 8 | 7 | 6 | 9 | 9 | 2 | 1 | 8 |
| 8 | 9 | 6 | 2 | 7 | 1 | 8 | 9 | 2 |
| 9 | 2 | 1 | 2 | 8 | 8 | 9 | 7 | 6 |
| 1 | 7 | 8 | 9 | 2 | 2 | 6 | 8 | 1 |
| 9 | 2 | 8 | 9 | 6 | 7 | 8 | 8 | 2 |
| 2 | 6 | 9 | 8 | 1 | 8 | 2 | 9 | 7 |
| 6 | 8 | 2 | 1 | 8 | 9 | 7 | 2 | 9 |
| 8 | 1 | 2 | 7 | 9 | 6 | 8 | 2 | 9 |
| 7 | 9 | 9 | 8 | 2 | 2 | 1 | 6 | 8 |